

[ 사회 ]

■광주·전남 방문의 해 첫 손님... 서울 단체관광객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처음으로 전남 동부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12일 오전 세계 5대승지 중 하나인 순천만에서 '남도사랑'을 외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이번주 영하권 한파

영동 32cm...사흘째 폭설

이번주 내내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폭설이 내린 영동지역에는 3~8cm 가량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13도, 철원 영하 12도, 서울 영하 7도 등 영하 12도~영하 2도로 예상되며,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 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기상청은 "14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하 3도로 예상되며, 16일에는 영하 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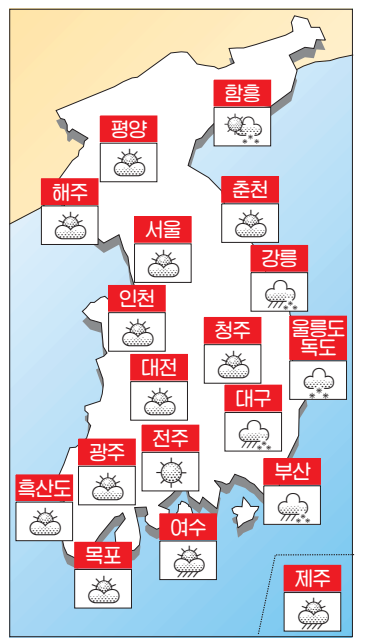
한편 13일 오후 5시 현재 대관령 32.3cm, 울릉도 20.6cm, 강릉 25.4cm, 속초 13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설로 인해 고성군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을 잇는 미시령 옛길은 사흘째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은 차량을 인근 미시령 관통도로로 우회조치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따뜻하게 입으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오전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1월 14일 (음 12월 7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2~4℃
포항	구름 많음	-2~3℃
안동	구름 많고 한때 비	0~5℃
울진	구름 많고 한때 비	-1~4℃
대구	구름 많음	-4~5℃
부산	구름 많고 한때 비	-2~4℃
인천	구름 많고 한때 비	-2~5℃
대전	구름 많고 한때 비	-1~6℃
충주	구름 많음	-4~5℃
청주	구름 많음	-4~5℃
전주	구름 많음	-2~4℃
목포	맑음	-4~3℃
여수	맑음	-6~3℃
제주	구름 많음	0~1℃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5:50 썰물 < 11:02  
목포 밀물 > 18:09 썰물 > 23:34  
여수 밀물 < 00:35 썰물 < 06:27  
여수 밀물 > 12:50 썰물 > 19:09

▲해돋이 07:41 ▲해질 17:42 ▲달돋이 10:52 ▲달질 23:40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씨						
최저/최고	-3/3	-4/2	-3/4	-2/4	-2/5	-1/7

광주 4월부터 상·하수도료 안방서 납부

오는 4월부터 광주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안방에 앉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상계좌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결제 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가상계좌란 은행에 직접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입금이나 수납 등만 가능하도록 임시로 만들어 제공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까지 광주는 행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를 만든 고객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각자 지정된 고유 가상계좌에 상·하수도 요금을 입금해 납부처리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상계좌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요금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다시 발급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전교조·한교조

사학법인과 단협 나서

광주지역 교원노조가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학법인과 단체교섭에 나선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또 다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과 함께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광주시회에 교섭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단체와 사학법인간 단체협약을 맺은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교섭을 시작해 타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사학법인들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 광주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등은 대의원대회를 거친 뒤 오는 4월께 사립학교 측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광주시회에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 /정성필기자 camus@

50·60대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날로 늘어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에 따라 50·60대 및 여성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2~2006 회계연도) 개인용 자동차(차가용) 보험의 사고 운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평균적으로 대인사고의 경우 9.1%, 대물사고는 1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 운전자의 증가는 대인 12%, 대물 12.9%로 평균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증가율이 대인 16.9%, 대물 17.5%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대인 14.4%, 대물 15.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 두 범주가 겹쳐지는 50대 여성 운전자는 사고 건수 증가율이 대인 24.4%, 대물 17.5%로 가장 높았다. /연필뉴스

신조어로 본 2007 취업 시장

'88만원 세대', '영어난민', '공휴족', '아근족'... 여전히 청년 실업난과 고용불안을 반영하듯 지난 한 해 여러 신조어들이 생겨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이 같은 취업을 시장과 직장생활의 세태를 엿볼 수 있는 신조어들을 정리해 13일 발표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

삼태백-이젠 30대 태반이 백수

恐休族-쉬는 것 두려울 정도로 취업 준비

구직중독증-취업 후에도 습관적 구직활동

태백'이라는 신조어는 이제 30대 태반이 백수라는 '삼태백'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김영하의 '퀴즈쇼', 정현아의 '달의 바다' 등 백수를 소재로 한 소설이 등장해 '백수소설', '백수문화'이라는 말도 생겼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시행된 PSAT(공직적격성검정시험)에 상되는 가운데 고시족과 공시족이 융합한 '고공족(公公族)'이 등장했다. 취업 후에도 습관적으로 구직활동을 멈추지 못하는 '구직

중독증'이나 입사하고도 재취업을 위해 회사에서 취업공부를 하는 '도독공부',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난민' 등 신조어도 등장했다. 쉬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공휴족(公休族)'도 등장했다. 학점 따기 수월

“맛·인심·풍광에 반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남도의 맛과 인심, 자연 풍광에 놀랐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처음으로 순천 일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감이다.

깨끗한 공기에 머리까지 맑아져  
대중교통·숙박시설 더 늘렸으면

선포식 이후 곧바로 광주·전남을 방문한 첫 관광객은 모두 500여 명. 이들은 11, 12일 이틀동안 10개 코스로 분산돼 순천, 해남, 진도, 목포 등 전남의 명소를 방문했다.

이날 순천을 찾은 22명의 단체 관광객들은 순천만, 낙안읍성 등 전남 동부권 관광지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탐사르 협약에 가입돼있고, 세계 5대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 약 230만㎡에 달하는 넓은 갈대밭과 수십여종의 희귀 생물이 모여 사는 순천만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온 안향진(여·50·독일 본 거주)씨는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머리가 다 맑아지는 기분이다”며 “한국에도 이런 갈대 숲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독일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꼭 가보라고 일러주고 싶다”고 감

탄했다. 이들은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과 희귀 철새들의 이름·종류·습성부터 재미있는 설화(說話)까지 결집된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구수한 해설에 푹 빠졌다. 또 40여분 동안 순천만 습지를 흐르는 강줄기를 탐사선을 타고 돌아보기도 했다. 위영애(여·57) 해설사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교육과 6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해설을 준비해 놓았다”며 “방문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남도의 대표적 관광상품인 낙안읍성에도 같은 모습이 재연됐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방문한 금승호(44·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씨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맛갈스런 음식은 다시 찾지 않으면 안될 정

도로 훌륭했다”며 “음식도 몇 번이나 더 가져다주는 등 푸짐한 인심은 감동할 정도”라고 말했다. 먼 거리 차를 타고 와 피곤이 체풀리지 않았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낙안읍성을 본 관광객들은 연방 감탄사를 내뿜었다.

방학동안 서울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온 이해담(8·호주 시드니 거주)군은 “2살 때 호주로 이민을 간 후 한국엔 두 번째 방문인데 어제 저녁에 먹은 꼬막 맛이 아직도 아른거린다”며 “낙안읍성은 마치 영화 속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간일색만은 아니다.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많았다. 황익승(53·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씨는 “교통편은 많이 좋아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저곳을 둘러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춰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중점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영찬(67·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씨는 “단체 관광객은 짜여진 코스만 돌아보게 돼 남도 풍광을 충분히 만끽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교통·편의 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시원스기타

현금 대리점: (062)2221-1700, (062)1510-7851, (062)2000-5800, (062)2527-1575

교육가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업자

010-9469-9373 (062)673-4981